

조영길 제38대 국방부 장관 취임

제33대 국방차관엔 유보선 기획관리실장 취임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한·미연합태세를 더욱 확고히 유지하면서 양국 간 동맹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장관은 이어 "국방의 원천은 국민"이라고 말하고 "군이 국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듯이 국민을 위한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열린 국방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날 이·취임식에는 역대 국방부 장관과 국회 국방위원,

3군 참모총장과 리언 J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이 대거 참석했다.

조영길 신임 국방부장관은 영관장교 시절부터 줄곧 군의 전략기획·전력증강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군내 전략기획의 최고 전문가로 군 전력증강사업인 울곡사업의 초대 멤버로 참여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군 구조개편 논쟁에서 현재의 합동군제도 관철에 크게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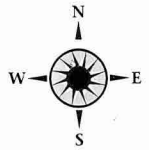
매사에 강직하고 소신이 뚜렷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으며 능력 위주로 인물을 평가하는 공평성과 부하들의 업무를 꼼꼼히 지도해 주는 자상함을 겸비한 지장(智將)이기도 하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두 차례나 최우수 중대장으로 선발되는 등 화려한 실전 경력을 갖고 있다. 오자복 장관에 이어 갑종 출신으로는 두 번째 국방부장관직에 올랐다. 정호근(鄭鎬根·갑종5기)전 합참의장과 함께 40여 년 동안 군생활한 기록도 갖고 있다.

조영길 전 합참의장이 제38대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였다. 조영길(曹永吉) 신임 국방부장관은 2월 27일 오후 육군회관에서 열린 제37·38대 국방부장관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군은 우리나라가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선진국방의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말하고, 우리 군은 힘과 지혜를 모아 튼튼한 국방력을 강화해 이러한 시대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의 정세는 이라크전과 테러위협·북한 핵문제·주한미군 재배치 등으로 안보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 군은 이러한 안보상황과 변화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장관은 "군은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첨단 정보화·과학화된 군사력을 건설하고 효율적인 군 구조 개선을 통한 전쟁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



한편 제33대 국방부 차관에는 유보선(육사 24기) 기획 관리실장이 발탁되어 3월 3일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서 유차관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향후 국운의 향방을 좌우할 민족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튼튼한 국방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부단한 자기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열린 국방을 실천해 국가와 국민 모두로부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군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유보선(俞普善) 신임 국방부차관은 독일 육사도 나왔으며 위관장교 시절에는 주로 작전분야에, 영관 및 장군시절에는 작전·전략분야에 근무한 군내 전략기획의 전문가로 꼽힌다. 두뇌 회전과 판단력이 빠르고 근면·검소해 매사 업무가 치밀한 실무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1년 5월부터 국방부 기획관리실장을 맡아 국방조직 및 예산·국회 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T-50 골든 이글 초음속 돌파 비행 성공

자체 개발 항공기의 초음속 돌파 성공한 세계 12번째 국가로 등록

공군 과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국내에서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가 지난 2월 19일 최초의 초음속 돌파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경남 사천기지 T-50 통합시험단에서 실시한 이날 초음속 돌파 비행에서 ‘T-50 골든이글(Golden Eagle)’은 고도 4만 피트(약 12,000m) 상공에서 마하 1.05(초속 360m)의 속도로 비행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자체 개발한 고유 모델의 항공기로 초음속 돌파에 성공한 세계 12번째 국가가 됐다.

초음속 비행은 초속 340m, 시속 1,224km인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게 비행한다는 것으로, 소리의 속도인 마하 1.0으로 비행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직선거리 400km 기준) 이륙한 지 20분만에 주파할 수 있다. T-50 고등훈련기의 최고속도는 마하 1.5이다.

이날 T-50 고등훈련기의 초음속 돌파 비행을 수행한 T-50 통합시험단 소속의 비행시험 조종사 이충환 소령은 “T-50 항공기가 마하 1.0을 돌파하는 순간 기체의 이상 진동이나 흔들림 없이 아주 양호한 비행성능을 보여 주었고 고난이도 기동 또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며, “항공기 설계목표인 마하 1.5 돌파에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항공기 성능에 만족을 나타냈다.

이번 초음속 돌파 비행은 지난해 8월 시제 1호기의 최초 비행에 성공한 후 2대의 항공기로 6개월간 총 60여 회의 시험비행을 통해 T-50 항공기의 각종 항공 전자장비, 계통, 기체구조, 비행 작동성, 안정성 및 조종성에 대해 광범위한 검증을 거쳐 실시된 것으로 그 동안 아음속(최대속도 음속 이하) 수준에 머물렀던 우리나라의 항공기 설계, 개발 및 지상/비행시험 기술을 첨단 항공기 성

능 입증의 최대 관문인 「초음속 돌파」에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항공기의 음속 비행시 공기가 가하는 힘은 초속 50m의 강풍이 부는 특급 태풍 속에서 받는 힘의 45배나 된다. 또한 음속 장벽을 돌파하는 순간에는 추가적으로 강한 공기의 저항력이 생성되고 이로 인한 충격파(Shock Wave)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항공기 날개의 표면에 공기 흐름의 교란이 생기고 공기역학적인 불안정성이 발생해 항공기의 양력이 급격히 떨어짐으로써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조적으로도 항공기 표면의 공기압력 불균형으로 날개의 일부분이나 항공기 전체가 크게 비틀리거나 항공기 기체가 제멋대로 진동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조종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T-50 고등훈련기」가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뜻한다.

공기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형상, 30만개에 이르는 부품과 각종 전자장비의 오차 없는 작동, 항공기 고속기동 및 강한 공기압력을 견딜 수 있는 기체 구조 등 초음속 돌파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한 설계 및 제작

능력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초음속 상태에서의 항공기 성능을 사전 검증하기 위해 7천 시간 이상의 풍동(공기터널) 시험도 수행했다.

T-50 고등훈련기는 현재 2대의 비행시제기가 군/관/업계로 구성된 통합시험단(CTF)의 주도하에 비행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훈련기로서의 성능 평가를 마치고 국방부의 최종승인을 획득해 대량생산을 시작하고 2005년부터 한국 공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이번 T-50 고등훈련기의 초음속 비행은 초음속 항공기의 국내개발 능력을 국내외에 과시함과 동시에 독자적인 항공무기체계 운용기반 구축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T-50 고등훈련기로 비행훈련을 받게 되는 우리 조종사들의 자부심과 긍지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50 고등훈련기의 개발에 성공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현재 공군에서 사용 중인 KT-1 기본훈련기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종합업체로, 이미 노후화된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800~1,200대, 시장 점유율 25%, 총 300억달러 상당의 T-50 해외수출을 목표로 유럽, 중동 등의 국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03 방산학회 정기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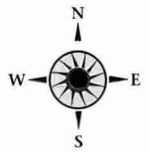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확대」 주제로 정책토론회도



2003

한국방위산업학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7일 캐피탈 호텔에서 학회 회원과 방산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2002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서와 2003년도 학회활동 및 예산계획을 승인하고 신규 임원을 선임하였다.

방산학회는 2003년도 활동목표를 첫째, 방위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 선도활동을 강화하고, 돌



째, 방산관련 정부기관, 국회, 군 등에 대한 방위산업 재도약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셋째 정부, 연구기관, 업체, 학계간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어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확대』를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는 채우석 조달본부 차장의 사회로 한남성 국방연구원 방산기술연구실장의 「방위산업의 경쟁

력 제고 방향」, 변승완 삼성탈레스 기술개발연구소장의 「방산기술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국산화 추진방향」, 정진태 국방부 방산지원과장의 「국산화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의 주제 발표에 이어 권기정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이사, 이상진 국방대 교수, 김용섭 국방품질관리소 실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아파치(AH-64) 동체 등 핵심부품 美에 공급

총 3억5천만달러 규모로 KAI-보잉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 항공우주산업(주)(대표 : 김亨寶)는 美 보잉사와 항공우주산업분야의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상호협력 및 이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월 18일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한 단계 도약하여 항공우주분야의 기술 자립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호협력을 위한 첫 단계로서 보잉사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아파치 공격용 헬기(AH-64)의 핵심부품(동체)을 향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독점생산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외에 보잉사의 주력 판매기종인 대형 기체구조물에 대해서도 생산공급 계약을 추진키로 합의하였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계약 물량 생산을 위해 국내 항공관련 협력업체들을 다양하게 참여시킬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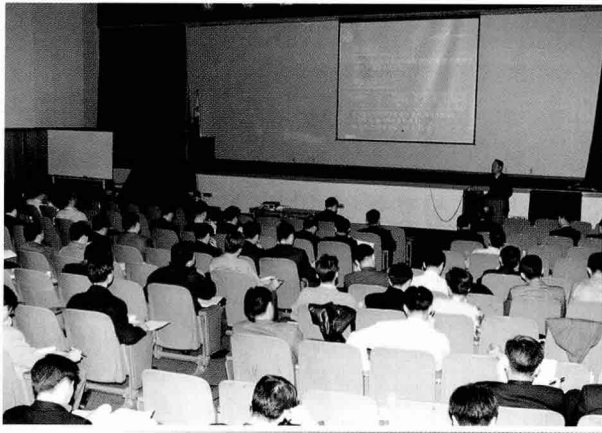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관계자는 "금번 계약은 F-X 절충교역사업을 통하여 첨단 항공기술의 국내 이전 및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 및 이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부 관계자 및 국내업체간의 상호 긴밀한 협조와 절충교역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보잉사의 노력,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주)가 국내 유일의 항공기 최종 조립업체로서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대외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국내기술로 독자적인 항공방위산업 분야의 자립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획득관리 규정 교육

업체 실무자에게 주요 개정 내용 소개해 업무 수행능력 제고



지난 2월 개정된 국방획득관리규정에 대한 설명회가 2월 27일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45개 방산업체 담당자 90여명과 국방부 담당관들이 참석한 이날, 정기현 국방부 획득정책과장이 강사로 나서 6차 개정된 국방획득관리규정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와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국방획득관리규정 주요 개정 내용을 업체 실무자에게 설명함으로써 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국방부 담당관과 상호 토의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코리아 에어쇼 2003」 11월 부산에서 개최

11월 4~9일 부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우리 나라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코리아 에어쇼 2003(제4회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11월 4일부터 9일까지 부산 전시 컨벤션센터(BEXCO)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기존의 전시 주최기관인 KAIA·한국방위산업진흥회(KDIA) 외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함에 따라 행사 규모 및 해외 참가업체를 비롯, 참관 바이어들이 종전보다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KOTRA는 신규 해외 참가업체와 바이어 모집에 주력하고 KAIA는 전시장 조성 및 행사 운영, VIP 초청, 기존 참가업체 유치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다목적헬기(KMH)사업·제주지역 항공사

설립·인천국제공항 확장 등 국내의 항공우주산업 수요가 확장된 가운데 공군장비뿐만 아니라 지·해상장비와 관련된 국내외 우수 업체들이 참가, 최첨단 기술·정보를 교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사에서는 부산 시민들을 위해 11월 8, 9일 부산 해운대 상공에서 KT-1·T-50 등 국내에서 자체생산하는 항공기와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 이글팀, 그리고 민간 곡예비행팀이 환상의 비행 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1996년 제1회 행사가 개최된 이래 올해로 4회를 맞는 코리아 에어쇼 2003은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서울공항에서 '서울에어쇼'라는 명칭으로 개최돼 왔으나 올해는 부산으로 장소를 옮기고 행사 명칭도 바꿔 개최하게 된다.